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, 당진시 공기관대행 사업 지방비 55억원 확보

당진신문 | 승인 2025.07.04 10:55 | □ 호수 1567



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전경. ©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제공

[당진신문]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(지사장 주은규)는 당진시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2025년 공기관 대행사업 제2회 추경예산 55억원을 교부 받아 영농환경개선을 위하여 하반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1월에 교부받은 예산은 57억으로 약 80% 상반기 집행을 완료한 상태다.

당진시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로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. 이에 당진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자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. 또한 매년 약 100억원 규모의 시설 보수 예산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지원하고 있다.

2025년 총 확보 예산은 112억원으로 유지관리성 사업비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 교부 사업비로 당진 취약시설 보수 및 영농 불편사항 해소함에 따라 농업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주은규 지사장은 “당진시에서 지원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빠르게 정비할 수 있고, 농업인의 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”며 “아울러 국비로 추진하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다수의 신규 지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당진신문 djnews@hanmail.net